

셀 모임 순서지 (2025년 12월 첫째 주)

Welcome - 아이스 브레이크

☞ 하루 종일 예수님과 데이트한다면 어디를 가고 싶나요?

Worship - 찬양

☞ 주님 나를 부르시니,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Word - sharing

1. 주일 설교 나누기

☞ 주제: 제자를 부르신 이유는 (마가복음 3:7-19)

나는 하나님께서 온 자입니다. 이 땅에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은 나에게 있지 않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셔서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을 부르시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셔서 무엇을 하길 원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길 원하셨습니다.

구약에 하나님과 동행한 대표적인 사람은 에녹입니다. 우리는 에녹처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매 순간 예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역을 하는 것보다 먼저 예수님과 함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올인 하십시오. 예수님은 예수님의 전부가 되는 자를 원하십니다. 초라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행운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시고 보내시고 전도하시길 원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낸다’의 원어의 뜻은 공식적인 임무를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복음전도의 삶을 사는 사명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두 다 제자입니다. 우리는 내 꿈 너머 예수님의 꿈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성공만을 위해 사는 것은 허무입니다.

인생은 내 무대가 아니라 주님의 무대, 즉 ‘My way’가 아니라 ‘Lord’s way’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세우시고 함께 있게 하시고 세상으로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셨습니다.

동시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도 내어 쫓는 권능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기쁨과 평안과 감사와 기대가 넘치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악한 것들의 영향으로 걱정과 불안, 두려움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복음은 이 어두움과 두려움, 염려, 근심, 걱정을 물리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면, 이 싸움은 이미 승리가 보장된 싸움입니다. 우린 이미 이긴 자입니다.

예수님 주변에는 제일 먼저 베드로 요한 야고보 3명이 있었고 그 뒤에 9명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70명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120명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500여 명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작은 12명의 소수로 시작하였습니다. 이 12명이 창조적 소수입니다.

여러분이 그 창조적 소수가 되십시오.

2. 적용

- 1) 창조적 소수,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나요? 어떻게 하면 각자의 자리에서 살 수 있을까요?
- 2) 복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VIP에 대해 나눠요.

Work – VIP 나누기 : 전도할 사람의 명단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기

⑤ 교회와 열방을 위한 기도제목

1. 셀과 부서가 부흥케 하소서.
2. 정기제직회와 공동의회 가운데 하나님께 함께 하소서.
3. 담임목사님께 강건함과 성령 충만을 주소서.

주님 나를 부르시니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four staves of music for a single instrument. The first staff starts in C major and transitions to G/B, Am⁷, and G⁶. The lyrics are: 주님나를부르시니·두려움없이이·배에서나아가리라. The second staff starts in Fmaj⁷ and transitions to C/E, Dm⁷, 1.Gsus⁹/G⁷, 2.Gsus⁹/G. The lyrics are: 주님나를부르시니·주님내게오라시니·기애·주님보고계시기애·주님여기계시. The third staff starts in C and transitions to G/B, Gdim⁷, Am⁷, and G⁶. The lyrics are: 주님여기계시기애·이깊은·바다가반석이되고. The fourth staff starts in Fmaj⁷ and transitions to C/E, Dm⁷, Gsus⁹/G, and G. The lyrics are: 주님여기계시기애·반석위를내가걸어가리라. The fifth staff starts in C and transitions to G/B, Gdim⁷, Am⁷, and G⁶. The lyrics are: 주님여기계시기애·제기친·파도가반석이되고. The sixth staff starts in Fmaj⁷ and transitions to C/E, Dm⁷, Gsus⁹/G, and C. The lyrics are: 주님여기계시기애·반석위를내가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The musical score consists of six staves of music for a single instrument. The first staff starts in A and transitions to E/G⁹, F#m, and C#m⁹/E. The lyrics are: 학나님의부르심에에는후회학심이이없네·작은나를부르신뜻을나는알수없지만. The second staff starts in D and transitions to A/C⁹, Bm⁷, and E⁷. The lyrics are: 내가입자리에설것도주의부르심이라·오직감사와순종으로주길을갈리라. The third staff starts in A and transitions to E/G⁹, F#m, and C#m⁹/E. The lyrics are: 하나님부르심에에는결코실수가없네·때론내가연약해져도주님날도우시니. The fourth staff starts in D and transitions to A/C⁹, Bm⁷, and E⁷. The lyrics are: 나를부르신하나님의신실한심을믿네·주의놀라운그계획을나는믿으며살리. The fifth staff starts in D/E and transitions to A, A/C⁹, D, and F#⁹. The lyrics are: 날부르신뜻내생각보다크고·날향. The sixth staff starts in Bm⁷ and transitions to B/D⁹, E, C#F, F#m, and A/E. The lyrics are: 한계획·나의지혜로측량못·하나·가장좋은길로·가장. The seventh staff starts in D and transitions to Dm⁶, A/E, Bm⁷, E⁷, and A. The lyrics are: 완전한길로·오늘도날이끄심·믿네.

피아워십 싱글 – 하나님의 부르심 (2020.11.20)